

[오피니언]

테마칼럼

국제화 시대

금융&Biz

문화와 미술

국제화 시대



오수상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갖자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대에 사상 최초로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올라섰다. 심리경제학(Psychological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미국의 심리학자 니나엘 카네먼(Daniel Kahneman)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처럼 논리적 으로만 전개되어 오던 경제학에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 전까지 경제학계에서는 인간은 학습적 이성 즉, 머리로만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했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머리 뿐 아니라 기습도 있지 않은가?

카네먼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이성적인 판단과 동시에 두려움 등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했다. 예를 들어 누가 당신에게 돈을 팔 확률이 51%, 읽을 확률이 49%인 게임을 제안한다고 하자. 인간이 머리로만 판단한다면 돈을 팔 확률이 읽을 확률보다 1%라도 크면 무조건 게임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 확률이나 읽을 확률이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선뜻 내기지 않을 것이다.

카네먼은 이러한 현상을 인간 심리의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으로 설명한다. 손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이득에 의한 학습적 효용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돈을 팔 확률이 특별히 높지 않는 한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네먼이 경제에서 심리적 요인을 차

지하는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은 아니다. 근래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했다. 또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경제주체들의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역설했으며, 통화학파의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아예 '경제는 심리'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치밀한 논리 전개와 정교한 모형 구축을 생명으로 하는 경제학계에서 그 태두들이 막연하게 그지없는 '심리'라는 개념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참 아이러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 시스템이 잘 디자인되어 있고 각종 제도적 환경을 갖춘다면 그 안에서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경제주체들이다. 이 경제주체들이 경제성장이 지속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생산과 소비를 늘리면 실제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생산과 소비를 줄이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현재화되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심리는 정형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변화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인간 심리가 경제성장 을 이끄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길 외에는 경제 성장의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누가 심어줄 수 있을까?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불리는 짐 캐리(Jim Carrey)도 10년 이상의 무명시절을 겪으면서 집이 없어 낡은 중고차에서 새우잠을 자는 고된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점점 자신감과 웃음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수령인으로 하는 전만달러짜리 수표를 하나 써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다. 이러한 스스로의 격려에 힘입어서인지 그로부터 불과 5년 뒤 짐 캐리의 영화 한 편 당 게임터는 천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자신감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외부의 지원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발굴해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믿고 투자할 것인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천만달러짜리 수표를 만들고 힘차게 출발하기를 기원해 본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경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최재영

얼마 전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두통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수년 전부터 두통을 앓아왔으며 여러 병원의 치료를 받아온 경우였다. '뇌 MRI 등의 고가의 검사와 통증치료, 한 방치료 등 해 보지 않은 치료가 없다'면서 "이젠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던 그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 근처 신경경신과를 찾았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일상 중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 한 연구에서 '1년간 한 번이 라도 머리가 아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 남성의 90%가 그리고 여

적으로 수축시킨다. 이러한 수축이 근육에 분포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두통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극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겼거나, 고열 등을 동반할 때,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때,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과 동시에 나타날 때 등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단기간의 긴장성 두통은 적당한 휴식과 진통제 복용 등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만성 긴장성 두통인 경우에도 신경 정신과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신경경신과를 찾았다고 했다.

기고

조호권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며 꿈을 예찬했다.

우리 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꿈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서 40년이 지난 2000년에는 2만달러 시대를 맞이했고, 1977년 수출총액 100억달러에서 2006년 3천억달러로 지난 30년 사이에 30배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면 끝을 맺는다. 학교에 입학(시작)하면 졸업(끝)을 하게 된다. 영어로 졸업은 graduation과 commencement이다. 이 중 commencement은 beginning(시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즉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다. 고고 시절의 꿈을 대학생으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뎌 더 크고 넓게 키워야 한다. 5대당 6대주가 나의 앞 마당처럼, 나를 위해서 차려놓은 무대처럼 느껴지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마치 부채꼴의 양쪽선과도 같다. 처음 시작점은 같이 불어있지

신경정신과 문을 두드리라

성의 95%가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다. 두통은 단순한 신체적 질환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두통질환 가운데 긴장성 두통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성 또는 신경성 두통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스트레스와 연관 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나 뒷머리가 당기는 느낌, 때로는 머리 뒤로 조이는 듯한, 또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흔히 고혈압으로 오인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저녁때나 주말에 심해지고, 보통 수 시간에서 2~3일 지속되며, 잠을 자고난 후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증 또는 걱정, 수면장애, 소음, 육체적 과로, 장시간의 자세불량 등이 발병 또는 악화요소로 보고 있다. 만성적 스트레스는 어깨와 목 주위의 근육을 지속

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이나 커피 담배를 절제하고, 과일이나 야채, 수분섭취를 늘리기 ▲적당한 운동 ▲휴식 또는 여가활동에 참여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키기 ▲친구나 애인, 가족과의 대화시간 늘리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등이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있어 왔으며, 모두에게서 긴장성 두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부적인 스트레스의 강도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한 것이다. <마음사랑정신과의원 원장>

청소년들이여, 세계 무대로 나가자

1980년 초 100포인트를 기록했던 종합 주가지수는 2008년 현재 170배의 성장을 거듭해 1,7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교역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 시장에 접목시킨 결과이며 경제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성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2천만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구촌의 유일무 이한 국가이자 꿈을 가진 나라의 국민 만이 달성을 수 있는 산물이다.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10대 경제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나라의 자랑스런 국민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자연의 꽃들도 피면 지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

만 부채꼴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두 선의 차이는 꿈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차이만큼 넓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채꼴의 바른 빗면에 놓여지는 성공인생의 선을 선택해야 한다.

옛말에 머리 좋은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 둘다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 둘다라 간다는 말이 있다. 글로벌시대의 꿈을 꾸며 즐겁게 인생을 설계하며 일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날 것이다.

청소년들이여, 여러분의 무대는 세계 지구촌이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에서 여러분의 꽃을 끼워 네이션을 마음껏 분출하기를 기대한다.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는 강렬한처럼 조국과 민족의 미래와 영광은 꿈을 가진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과 양 어깨에 놓여 있다. 세계가 나의 무대이니 더 크고 넓게 꿈을 꾸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인터넷상 병역 기피 사이트 원천 차단해야

며칠 전 광주일보에서 프로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어깨를 내리쳐 탈골시킨 뒤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기사를 봤다.

어쩌면 이것은 방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입대를 앞에 두 젊은이들에게 병역 방법을 상담해 주는 사이트들이 활개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영 연기' 또는 '병역 면제'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수십 개 사이트가 뜬다.

사이트에는 '입영 연기'를 희망하거나 면제 문제를 친절히 해결해 드립니다'면서 연

락처를 알려놓은 게시물들이 여기저기 떠 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통화는 곤란하다며 문자로 하자는 연락과 함께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를 알려왔다. 이는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병역비리 사이트의 범람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신을 좀먹는 그야말로 반사회적 범례이다. 병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다. 병무청 등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병역'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에서 아예 차단하는 방법은 어떨까.

병역기피 사이트의 원천 차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수영·광주 북구 운동

늘어나는 캠퍼스 성범죄 예방대책 서둘러야

안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범죄자들은 '대학에는 경찰이 없고 인적도 드물어 성폭행 장소로 택했다'고 말할 정도로 치안 사각지대다. 그래서 미국처럼 대학내 캠퍼스 폴리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캠퍼스 폴리스는 주로 여자화장실과 주차장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가로수나 건물 입구에 비상벨을 설치해 언제든지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범죄는 대개 늦은 밤, 강의실이

나 교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자화장실과 주차장 주변은 학생 방범조를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 또 캠퍼스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시설]

각료 인사마저 광주·전남 배제할 건가

14일 윤과를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면면을 보면 새 정부가 노골적으로 호남을 배제하려는 인상이 짙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의 원안대로 14개 부처 장관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장관 내정자 가운데 호남 출신은 남주홍(순천) 특임장관 내정자와 정운찬(고창) 농수산식품장관 내정자 등 2명에 그쳤다. 그러나 경제부처 등 실세로 평가되는 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기획재정·법무·교육과학·행정안전·노동부 등 주요 5개 부처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의도적으로 호남을 배제한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인사를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의 호남 배제 인사는 내각만이 아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철저히 소외됐다. 특히 '권력의 핵'으로 불리는 사정관이

광주시 지하철 개통 연기 재검토하라

선거법에 둘러 광주지하철 1호선 2구간의 개통이 보름 이상 연기된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을 3월 27일까지 개통 키로 했으나 선거법상 개통식 개최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직된 선거법 적용도 문제지만 시민권의 의지를 외면한 광주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선거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선거행동에 따른 부정이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은 주민 불편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부를 수 있다.

광주시는 지하철 2구간 운행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하철을 우선 개통한 뒤 총선 이후에 기념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통식이 시민의 편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너무 억제하기 말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생색내기용 개통식을 갖기 위해 '시민의 밤'인 지하철 운행을 연기하는 것은 행정권의 주의에 불과하다. 선관위도 총선 전 지하철 운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

無等鼓

붉은 분단 이후 지난 1990년 '통일축구 대회'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만났다.

통일축구대회는 지난 1929년부터 남북이 갈리서기 전까지 경성(京城) 축구단과 평양(平壤) 축구단이 서로 방문해 가졌다.

한국 축구의 대표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가 오는 3월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전 응원에 '조건부' 불참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남북 축구팀은 지난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의 시작과 함께 서울과 평양을 오가